

인간과 자연... 청소생물을 통한 생명의 순환

생명에서 생명으로

베른트 하인리히 지음

생물학자이자 문필가인 베른트 하인리히 미국 버몬트대 생물학부 명예교수는 어느 날 '심각한 병'을 진단받은 한 친구의 편지를 받는다. 언제 썩을지 모르는 금속관에 방부처리한 시신을 담아 묻는 매장도,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화장도 싫다며 곤충이나 동물에 의해 자연으로 재순환되는 장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일을 계기로 베른트 하인리히는 오랫동안 자신이 관심을 기울여왔던 '생명존재와 순환'에 대해 좀 더 근원적 물음들을 던지게 된다. 이후 하인리히는 송장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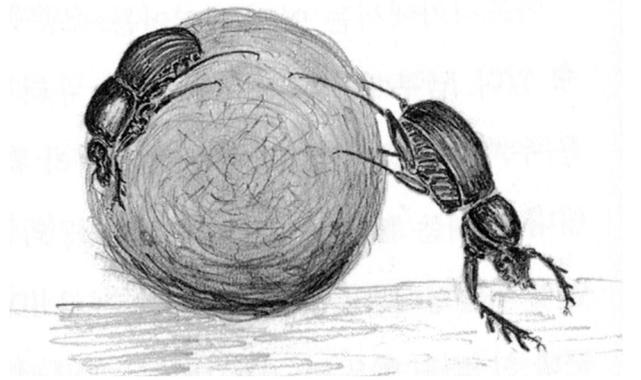


등 '자연의 장의사'들이 어떻게 사체를 분해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원제 Life Everlasting)는 동·식물의 죽음 이후 자연에서 벌어지는 경이로움을 탐구한 과학 에세이로, 2013년 미국 펜(PEN)클럽 논픽션상을 수상했다. '인간과 자연, 생명존재의 순환을 관찰한 생물학자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에서 저자는 동물의 생활사를 연구한 관찰일지에 자신이 체험한 에피소드를 곁

합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저자의 시선이 주로 머무는 대상은 생쥐처럼 작은 동물의 송장을 땅에 묻는 송장벌레부터 구더기, 딱정벌레, 독수리, 곰, 큰까마귀 등 이른바 '청소동물'들이다. 그는 '자연의 장의사'들이 대단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자연의 장례를 지라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이들끼리도 동물의 사체를 둘러싸고 경쟁과 협동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한다. 저자는 11편의 글을 통해 무엇보다 '자연의 장의사'들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인간도 때에 따라 '청소동물'이 된다'고 말한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계 독일인인 저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탄압을 피해 독일 북부 한하이데 숲에서 숨어 지내며 힘든 생활을 한 바 있다. 이때 저자

의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나무 열매를 채집하거나 '청소동물'처럼 죽은 멧돼지 등 먹물거리를 찾아야했다. 식물계 역시 죽은 개체가 얼마나 잘 분해되느냐에 따라 숲생태계의 건강이 좌우된다. 숲에서는 곤충과 균류(버섯), 딱따구리 등이 장의사 역할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숲속의 죽은 나무는 천천히 분해돼 흙으로 돌아간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눈길을 돌리는 '청소동물'들에 애정어린 시선을 보낸다. 이를 통해 자연계 동물과 식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바다에 죽은 물고기를 먹는 청소동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죽은 물고기들이 바다꼭대기까지 차오를 겁



똥을 굴리는 소똥구리 한 쌍. 수컷이 공을 밀고 암컷은 가만히 타고 있다. 똥은 땅에 묻혀서 유충의 먹이가 되고, 유충은 똥 덩이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구리 제공>

니다. 재활용 동물들이 없다면, 자연은 멈춰버릴 거예요." 특히 저자는 '인류가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변신을, 나아가 다른 생명의 변신을 제어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이 자연 생태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되묻는다는. <구리·1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한국 사회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판결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반성 기록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펴냄

'대법원 판결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렸다. 퇴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김영란 대법관이 펴낸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한국 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은 필자가 대법관으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선정한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까지 솔직하게 밝힌 책이다.

10가지 사건들은 판결 당시에도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판례와 입법,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쳐 우리 사회의 향방을 좌우해 온 결정적인 사건들이다.



저자는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

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등을 이야기한다. 책에서 다룬 사건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김 할머니 사건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삼성 사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상지대 사건 ▲성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귀환 vs 환경의 가치 ▲대규모 국제사업의 가치-새만금, 천성산, 4대강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출퇴근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등이다. <창비·1만5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사피엔스=재래드 다이아몬드, 다니얼 카너먼, 마크 저커버그가 격찬한 베스트셀러.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수렵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 곳에 모여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였는가, 인간은 왜 지구 역사상 가장 지명적인 동물이 되었는가... 멀고 먼 인류의 시원부터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 끊임없이 진화해온 인간의 역사를 다양하고 생생한 시각으로 조명한다. <김영사·2만2000원>

▲지적 생활의 즐거움=삶에 지친 지적 노동자를 위한 고전. '지적 생활'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빅토리아 시대의 지성 필립 길버트 해머튼이 지적 생활을 택했으면 서도 지적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지성 지적 노동자와 전 계층의 사람들을 진정한 지적 즐거움으로 이끌어준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은 물론 시립묘지에 묻힌 자들과도 많은 교감을 나누 해머



튼은 자신이 탐구해온 다양한 지적 생활자들의 자기만의 독특한 생활법을 소개한다. <리수·1만3500원>

▲술자리도 능력이다=일본 허스트 후진가호사의 'MEN'S CLUB'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도가 히로쿠니. 일본 최대의 출판 불황이라 불리는 최근 8년 동안 잡지 매상을 V자로 회복시켰다. 저자는 그 비결을 단연코 술자리라고 말한다. 그는 365일 중 364일 술자리를 갖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비즈니스가 채우지 못하는 1%'를 채우기 위해서다. 도가 편집장은 이 책에서 8년 동안 터득한 자신만의 극비 배려 기술을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다. <다산3.0·1만2000원>



▲스파르타=2010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소형의 첫 시집. 시인은 산과 죽은 자가 뒤섞인, 광중 혹은 지옥과 같은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간다. '흰방'의 공간에서 시작되는 시집은 오렌지 빛의 동화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무의식의 세계를 통과하고 있다. 표제작 '스파르타'가 보여주는 꿈과 숲의 이미지는 '숲'이 낯날의 옴소로 분절되면서 낯설어지는 것처럼, 김소형 시에 나타나는 공간-숲들은 그 안의 다양한 의미들을 거느리는 사랑의 주체가 된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하버드 학생들은 더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21세기의 가장 주목받는 외교정책 전문가이자 언론인인 저자 파리

드 자카리아는 현 시기를 세계화의 가속화, 자본주의의 극대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정의한다. 책이 현재 아시아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과 산업계의 변화 속에서 교양 교육과 인문학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인 현실과 접목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 지식의 현실과 지향점에 대한 가장 충실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사회평론·1만3000원>

▲레드 스페로우 1, 2=2014년 에드거상과 국제 스릴러 작가상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연달아 거머쥔 신예 작가 제이슨 매튜스의 데뷔작. 주요 언론사들이 '스파르타'의 새로운 걸작'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작품이다. 적국의 첩보원을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스페로우 학교의 졸업생 도미니카. 비범한 능력과 눈부신 미모를 타고난 그녀는 러시아의 스페로우가 되어 한 미국 첩보원을 유혹해야 한다. 표적 대상인 네이트는 고위급 러시아 스파이를 관리하며 러시아의 일급 기밀들을 입수하고 있다. <오픈하우스·각 권 1만3000원>

어린이 책

▲어린이 소방서 교실=소방서와 관련된 모든 것, 소방관 아저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소방관 아저씨들이 어떻게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지 불은 어떻게 끄고 어떤 구조 활동을 하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소방서는 어떻게 생겼고 소방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플랩을 들춰 보며 즐겁게 이해할 수 있



다. <크레용하우스·1만5000원>



▲바보가 만든 숲=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동화 작가, 미야자와 겐지의 대표작들을 그림책으로 엮은 시리즈.

'은하철도 999'의 원작자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바보가 만든 숲'은 미야자와 겐지가 소리 높여 말하던 자연과의 공존을 가장 잘 드러내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 <담푸스·1만8000원>

▲내 친구 마로 1, 2=신비하고 색다른 캐릭터인 마로와,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어린이 에빈이와 동화가 '시간의 페이지'를 통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만화가 김홍모가 펼친 모험 세계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혼자서 외

로움을 견디던 에빈이와 경쟁으로 뽐냈던 동화는 자신감과 밝은 웃음을 되찾는다. <보리·각 권 1만2000원>

▲조선과학수사관 장선비=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 참된 정의를 보여 준 조선 프로파일러들의 뿌듯한 현장을 동화로 들려준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참다운 정의란 무엇이고, 조선 시대의 수사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무엇을 바탕으로 사건을 추리하고 해결했는지 속도감 있는 이야기 진행으로 탐정 동화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파란자전거·9800원>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침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전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